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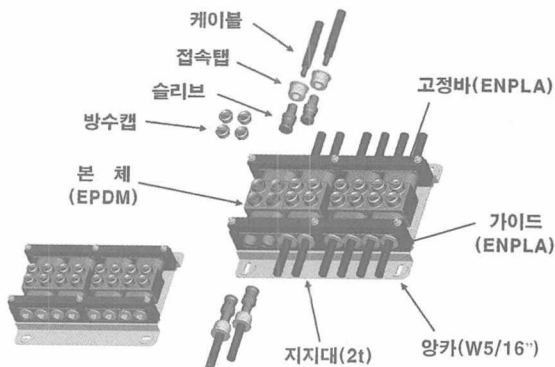
## 전력산업에 대·중소기업 「상생펀드」 출범

-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5월 3일(수) 오전 한전 등 11개 공기업 및 LS산전, 현대중공업, 효성 등 민간 대기업 사장들과 전력·전기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전력·전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와 벤처 투자 진흥을 위해
  - 정부가 150억원, 공기업과 민간 대기업이 114억원 등 총 264억원의 자금을 출자함으로써 향후 시중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500억원 이상의 전력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 신기술 인증제품의 적극적인 우선구매,
  -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원 및 해외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협력”과 “질 좋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전력, 전기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민간 대기업까지도 힘을 모아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정(丁)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경쟁이 가속화되고 환율하락, 고유가 지속 등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재원을 확보,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 한전, 대기업 등 수요처는 우수 제품을 납품받아 전기품질 및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투자벤처기업의 성공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그야말로 서로 성과를 공유하면서 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번에 결성되는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은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사분야 대기업이 직접 출자에 참여한 최초의 상생펀드로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함유한다.
  - 첫째, 그동안 전통, 성숙산업으로 인식하여 IT나 바이오 분야 등에 비해 벤처투자가 저조하던 전력, 전기분야에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스타 벤처기업”의 출현 가능성 등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되고,
  - 둘째, 주요 대기업들이 출자에 참여하면서 투자대상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공급은 물론, 기술 및 경영 지원과 함께 판로 확보까지 연계됨으로써 벤처투자의 성공가능성과 상생협력의 여지가 크게 높아졌고,
  - 셋째, 이에 따라 여타 벤처투자조합에 비해 투자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매력적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시중의 투자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문의 : 산자부 전력산업과 02-2110-5472)

## 장마철 맨홀 감전사고, 걱정 끝

- 매년 장마철 마다 발생하는 도로변 전기맨홀에 의한 감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국내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지중저압 케이블 접속장치가 그 기술성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으로부터 신제품인증(NEP)을 획득하였다.
  - NEP(New Excellent Product) : 「산업발전법」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신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맨홀용 지중저압 케이블 접속장치 : 땅속에 설치되는 전선연결함
-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4만6천개의 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 때 마다 감전 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 동안 사용되어 온 지중의 전선연결 접속장치는 방수성이 미흡하여 장마철에 장기간 침수될 경우에는 누전에 의한 정전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고정 볼트가 풀려 전기사고의 원인이 되어왔다.
  - 지난해 6월 집중 호우시 맨홀의 감전사고로 인천, 부산 등지에서 여고생 등 2명이 사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음.
- 이번에 개발된 지중저압 케이블 접속장치는 기존의 장치와는 달리 절연 및 방수성능이 우수하고 전선의 굴곡하중에도 방수성을 유지 할수 있도록 강도가 보강된 제품이다.
- 또한 2중 방수구조로서 7m의 수심에서도 방수가 되고, 다각도 구조로서 협소한 맨홀에서도 시공성이 좋으며, 연결 나사부의 폴림방지장치 등의 특성을 갖는 제품으로 이 제품의 설치가 본격화되면 맨홀에 의한 감전사고가 크게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신제품인증을 적극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전기기기표준과 02-509-7299)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 멀티플레이어형 인재 양성위해 5개 대학에 5년간 총 44억원 지원 -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와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공과대학 여학생의 역량개발을 통한 전공분야로의 취업 진출 확대를 위해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5대 권역에 권역별 1개 대학씩 총 5개 선도대학을 선정, 성 인지적 공과교육 시스템 개발, 현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협력·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3개 필수 사업을 주축으로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에 필요한 멀티플레이어형 여성 산업인력 양성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각 대학별로 8천만원 내외, 2차년 도부터는 매년 2억원 내외로 지원하여 총 5년간('06년~'10년) 4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2005년 통계를 보면 이공계 여학생 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학계 중심의 인력구조로 공학계 여학생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대학 18.3%, 석사 13.0%, 박사 10.4%), 그나마도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비율이 남학생(81.1%)에 비해 여학생(67.2%)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 앞으로 선도대학들은 여학생과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여학생의 인지적 특성과 경험을 고려한 공학교육 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 이공계 여학생의 전공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현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운영,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동 과정, 현장 체험 및 경력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산자부 산업기술국 안현호 국장은 "동 사업은 지금의 공대 교육 과정이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여학생들의 전공 친화력이 낮고 현장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력의 공급부처인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전공 능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적응력, 문제해결 능력 등 전공외적인 역량 개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과대학 여학생의 전공분야 진출 확대를 통한 잠재 노동인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자부 산업기술인력과 02-2110-5207,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02-2100-6210)

## 국가표준(KS) 제정방식 대폭 개편

- 상향식 표준제정 방식인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

-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단체, 표준화 포럼, 타 부처 표준화 관련 기관 등 민간이 주축이 되어 KS 원안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으로 전환된다.
- 이를 위해 국가표준대표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상반기 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PSDO 운영요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지정대상은 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150여개 기관·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국가표준개발 수행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게 되며,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과 관련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하게 된다.
- 기술표준원은 PSDO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 전문인력 양성, PSDO "CEO 협의체" 구성·운영 및 KS 제·개정 등 표준화 추진시 PSDO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시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을 PSDO로 활용하여 KS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 표준제정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국가표준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PSDO에서 개발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KS의 제정절차인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현행체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관련 단체 등 수요자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앞으로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인 PSDO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강화는 물론 표준수요에의 보다 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PSDO를 육성하여 국가표준의 활용·확산의 거점 및 국가·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자부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0)